

경제

금호타이어 노사협상 결렬

노조 파업 수순 돌입...워크아웃 조기졸업 '암초'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졸업을 앞둔 금호타이어가 노사갈등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단체교섭이 결렬됐고, 노조는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20일 금호타이어가 노사 협상에 따라 노사 양측은 이날 "2012년 단체교섭 제5차 대표교섭"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임금 13% 인상, 워크아웃 기간동안 반납하기로 한 기본급·상여급의 회복, 성과급 지급, 해고자 원직 복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아웃으로 인한 노조원들의 희생을 고려해 실적 개선 이익금을 나누자는 주장인 셈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워크아웃이라는 제약을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워크아웃 개시 당시

합의했던 2010년 임·단협(기본급 10% 삭감, 기본급 5%·상여급 200% 반납, 생산성 향상 등) 준수, 노사동거의 성실한 이행 등을 강조했다.

사측 관계자는 "특수 유지 등 눈에 띄게 실적이 개선돼 워크아웃 조기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며 "조급만 더 참으면 이익을 나눌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요한 시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면 금호타이어는 나라에서 떨어져 회생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호타이어는 물 들어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1분기 매출이 1조553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83억원으로 61.0%, 당기순이익은 86억원으로 226.7% 증가했다.

시장 점유율도 상승세다. 금호타이어의 국내 교체용 타이어시장 점유율은 워크아웃에 돌입한 2009년 25%까지 떨어졌지만 2010년 28%, 지난해 30% 수준으로 올라섰다.

경영체제도 안정을 찾고 있다. 지난해 113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박삼구 회장의 오너경영체제 부활이 이뤄졌다.

금호타이어는 여세를 몰아 21일 인천공항 아시아나항공 격납고에서 타이어 제품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 행사는 박세창 부사장이 주관하는 것으로, 3세 경영승계 구도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경영 개선에 따라 업계에서는 금호타이어가 내년 상반기 중 워크아웃을 졸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기사용 감축 탄력 적용...청년인턴제 대상기업 늘려 달라"

규제개혁추진단 광주지역 기업 간담회

"대형마트 강제 휴무 여파로 마트에 입점한 음식점·약국 등 중소기업들이 월 평균 30% 이상 매출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 대형마트 휴무와 상관없이 음식점·약국은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

"광주 서구 매일종합상가 입주업체들이 상가 앞에 상품을 진열하기 위해 지붕을 설치했다가 건축법 위반으로 1000만원에 가까운 강제이행부과금을 물어야 할 형편이다. 상가 지붕 설치는 보편화된 관행으로 부과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간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20일 광주상공회의소 3층 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준만 광주상의

상근회장을 비롯해 20여명의 광주 지역 기업인과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주 평동산단 내 디케이산업(주) 김승호 상무는 "정부는 지난 동절기때 산업계에 일괄적으로 전력사용량을 전년동기대비 10% 이상 줄이도록 규제했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했다"면서 "하지만 제조업체의 경우 매출과 투자가 늘었는데 어떻게 전력사용을 줄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상무는 "올 여름철 에너지 전력과 출하하는 제조업체의 경우 과대 부과해야 하다 보니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한국의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윤명희 회장은 "광주지역 중소기업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0%



민간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주최한 광주지역 기업 규제개혁 간담회가 20일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박정목기자 jwpark@kwangju.co.kr

실질자본금 심사기준이 과도하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정 처장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까다로운 실질자본금기준까지 맞춰야 하다 보니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윤명희 회장은 "광주지역 중소기업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며 "청년인턴제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대상 연령도 만 39세로 넓혀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밖에 광주지역 기업인들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 확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 ▲지역제한 입학 기준 변경 등도 건의했다. /박정목기자 jwpark@kwangju.co.kr



"식자재 시장 대기업 철수하라" 20일 오후 광주시 서구 풍암동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광주지부 소속 회원 등 식자재 유통상인들이 대상, CJ 등 대기업들의 식자재 납품업 진출에 항의하는 뜻으로 고추장과 된장을 뿌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우리은행 대출 공채 합격자 60% 지방대 출신

우리은행은 대출 신입행원 200명을 뽑는 상반기 공채 합격자 가운데 60%가 지방대 출신이라고 20일 밝혔다.

우리은행의 올해 지방대 채용 비율은 금융권에서 가장 높다. 우리은행

은 출신 학교를 따지지 않고 신입행원을 뽑는 '열린 채용'을 해왔다. 올해는 지방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지방대 채용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연희뉴스

NH농협 신임회장에 신동규씨

신동규(61) 전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NH농협 금융지주 신임 회장으로 확정됐다.

NH농협 금융지주는 20일 주주총회를 열고 회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신씨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신 회장 공식 임기는 21일부터 2년간이다.

경남 거제 출신인 신 회장 후보는 경남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1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한국은행, 옛 재정경제부 공보관·국제금융국장·기획관리실장, 금융정보분석원(FIU) 초대 원장, 수출입 은행장 등을 역임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오비맥주 사장 장인수씨

오비맥주는 20일 장인수(57) 영업총괄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발표했다. 순천출신으로 주류업계에서 '고졸 신화' '영업의 달인'으로 불리는 장 인수 사장은 1980년 ㈜진로에 입사해 33년간 영업직에 몸담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기술부터 경영·마케팅까지

281개 가족회사 '맞춤 지원'

동신대산학협력단 링크사업 시동

동신대학교가 지역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앞장서는 등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중점대학(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으로 선정된 동신대 산학협력단이 가족회사 워크숍과 함께 링크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허기택·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은 지난 19일 대학 국제회의장에서 211개 가족회사와 70여개 예비가족회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동신대 가족회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가족회사란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학과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대학과 기업이 공동운영체라는 인식 아래 상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조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동신대 링크사업단은 가족회사의 발전을 위해 '크루즈 시스템'이라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크루즈에 승선

하면 숙박에서부터 식사, 이동, 문화, 휴식이 한자리에서 해결되듯, 동신대는 크루즈 시스템을 통해 가족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결집해 크루즈 지원팀을 구성, 대학 보유기술과 해외 신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고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기술지원, 경영, 홍보, 마케팅 등 전 방위적인 맞춤형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최첨단 고가의 공용장비를 구축해 활용토록하고 산업체 재직자 직무교육, 가족회사 박람회, 워크숍 및 세미나 등을 지원해 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게 된다.

한편 동신대는 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에 선정, 향후 5년간 매년 31억여 원씩 총 156억 원을 지원받아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으로 대학 교육과정과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최재호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전남 무역수지 4개월 연속 흑자 5월 1900만달러

광주·전남지역의 5월중 무역수지가 19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 2월 이후 4개월 연속 무역흑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5월 광주·전남 무역수지는 지속적인 수출 호조에 힘입어 19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의 무역수지는 전월대비 5.7% 증가한 7억77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남은 수출이 올 두 번째로 많은 36억4900만달러를 기록했으나 원자재 등 수입증가로 인해 전월대비 63% 감소한 7억58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체무역수지는 19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의 수출은 전월대비 4.4% 증가한 11억 8100만달러 수입은 1.9% 증가한 4억4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전월대비 5.7% 증가한 7억77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기·전자제품과 기계류 수출이 증가했고, 고무와 원면 등 경공업원료 수입이 증가했다.

전남의 수출은 전월대비 2.6% 감소한 36억4900만달러, 수입은 원유 등 원자재 수입 증가로 전월대비 4.6% 증가한 44억 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904.12 (+12.35)
▲ 코스닥지수	484.55 (+6.19)
▲ 금리 (국고채 3년)	3.31% (+0.02)
▲ 원·달러 환율	1,151.00원 (-5.3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철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충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사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사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정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도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인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광주·전남 기능장1호 대산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50만원~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기든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검색

대산프리모가발